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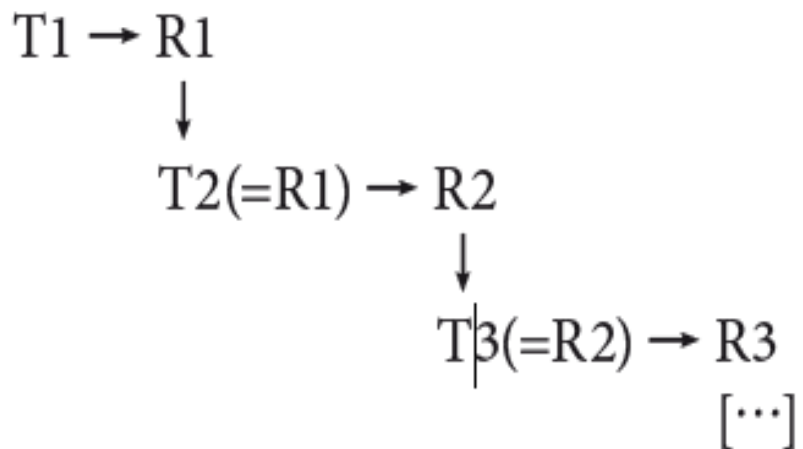
7. 테마-레마 구조

텍스트를 정보의 단위, 즉 '구정보(Thema)의 연결체'나 '구정보의 고리' 또는 '진술의 출발점의 고리'로 이해하는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문장 안에 구정보와 신정보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때 구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화·청자나 작·독자가 의사소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V. Mathesius에 의해 기초가 다져진 Praha 학파의 기능 문법이 그러한데, 1960년대 말부터 F. Daneš(1968, 1970)는 주제 개념을 어떤 것이 전달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7-1 테마 전개 유형

(1) 단순 선형식 주제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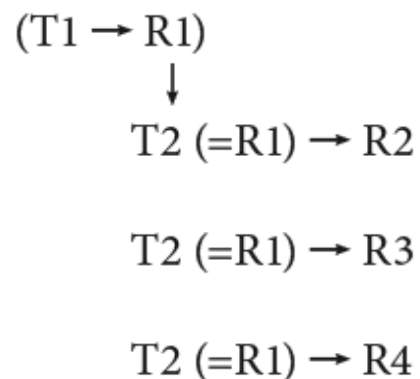
Alle Stoffe bestehen aus Atomen. Diese kleinen Teilchen der Materie sind aber noch nicht die letzten Einheiten. (모든 물질들(Stoffe)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Materie)의 가장 작은 단위는 아직도 최종단위가 아니다.)



(2) 주제 관통식 전개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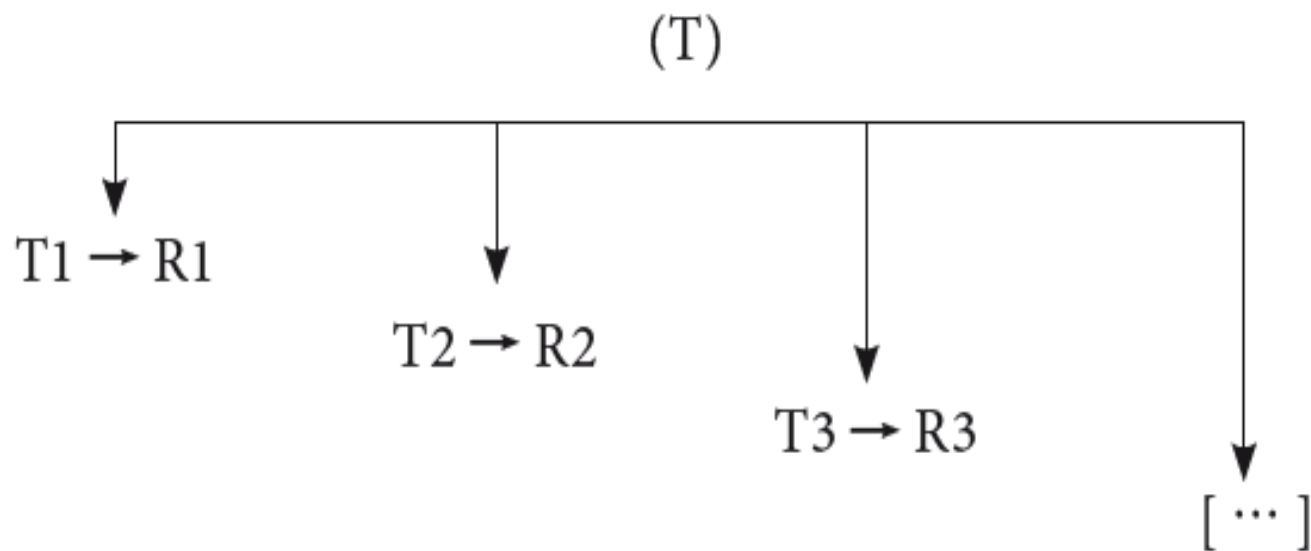
Goethe war überzeugt von dem Fortschritt der menschlichen Entwicklung. Er trat für die Erziehung des Menschengeschlechts zur friedlichen Entwicklung ein [...] Sein Humanismus ging aus [...] Der Dichter nannte sich [...] (J. W. v. Goethe는 인간 발전의 진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평화로운 발전에 대한 인류 교육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 그의 휴머니즘은 [...] 에서 유래했다. 그 시인은 [...] 라고 불리워졌다.)

여기서 전체 문장의 주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각각의 문장에는 새로운 설명부만 추가 된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상위주제 파생식 주제전개

Die sozialistische Republik Rumänien liegt [...] Die Bodenfläche des Landes beträgt [...] Seine Bevölkerungszahl [...] Die Staatsgrenze hat eine Gesamtlänge von [...] (사회주의 공화국인 루마니아는 [...] 위치해 있다. 이 나라의 면적은 [...] 에 달한다. 이 나라의 인구는 [...] 국경의 길이는 [...] 이다.)



(4) 설명부 분열식 주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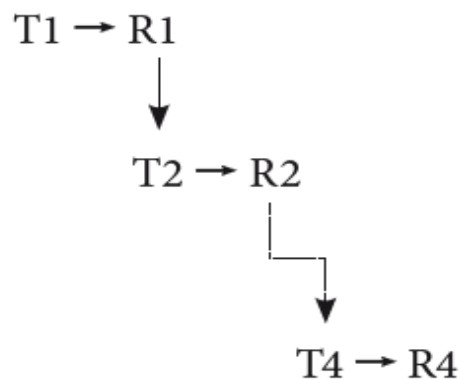
Die widerstandsfähigkeit in Fuechter und trockener Luft ist bei verschiedenen Arten pathologener Viren sehr unterschiedlich. Poliomyelitisviren sterben in trockener Luft sofort ab [...] bei Grippenviren ist es hingegen umgekehrt. (병리학적 바이러스의 습하고 건조한 공기에서의 생존능력은 아주 다양하다. 급성회백수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건조한 공기에서는 금방 죽어버린다. 이와 달리 독감 바이러스는 그 반대이다.)

$$\begin{array}{c} T1 \rightarrow R1 (= R1' + R2'') \\ \downarrow \qquad \qquad \downarrow \\ T2' \rightarrow R2' \qquad T2'' \rightarrow R2'' \end{array}$$

(5) 비약식 주제전개

맥락을 통해서 보충될 수 있는 핵심 주제 성분은 생략된다. F. Daneš 는 이 유형에 대한 예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K. Brinker(1985: 46)는 다음과 같은 예를 가지고 이를 보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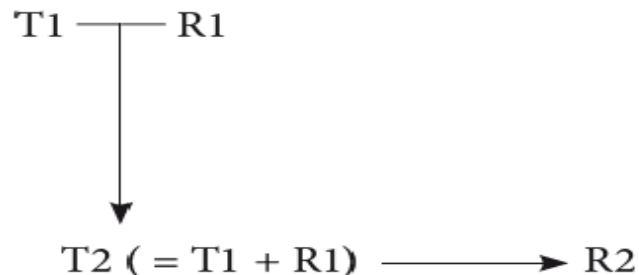
Hans(T1) wurde in ein dunkles Zimmer(R1) geführt. Es(T2=R1) war mir wertvollen Möbeln(R2) ausgeschattet. Die Teppiche(T4) zeigten Farben(R4). (한스(T1)는 어두운 방(R2)으로 안내되었다. 그것(T2=R1)은 값비싼 가구들(R2)로 장식되어 있었다. 양탄자(T4)는 현란하게(R4) 보였다.)



이런 식의 텍스트테마의 전개유형들은 훗날에 많은 비약을 경험하게 되는데, J.-W. Lee(2002: 183 이하 참조)의 논문에서도 그러한 예들이 발견된다. 이를 보면,

(6) 메타 성격의 테마전개 유형 (Thema als Meta-Charakter)

- (i) Das Horstmarer Unternehmen Schmitzanhänger [T1] will nach kräftigen Gewinn- und Umsatzzuwächsen „in drei bis vier Jahren börsenfähig sein” [R1].
- (ii) Das [T2 (T1 + R1)] kündigte das Unternehmen gestern in Münster an [R2].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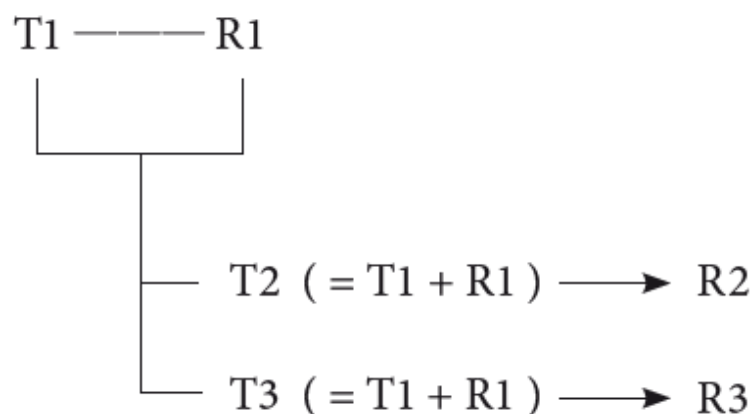


첫 번째 문장 (i)의 테마는 Das Horstmarer Unternehmen Schmitzanhänger 이다. 그러나 뒤따르는 문장 (ii)의 대명사 Das는 테마도 아니고 레마도 아니고, 차라리 첫 번째 문장 전체를 받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메타 성격의 테마 전개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신문기사문에서 자주 발견된다.

(7) 전방관련 텍스트전개유형 (Textprogression mit Vorwärtsverflechtung)

이 유형은 어떤 문장이 이전의 텍스트에서 아무런 연관요소가 없지만 후행 문장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i) Es gleicht einer Satire. (ii) Da erläßt Bonn eine Fahrverbotsregelung [...] (iii) und noch am gleichen Tag gibt das Bayrische Innenministerium Tips für die Umgebung eben dieser neuen Vorschrift.



여기서 문장 (ii)와 (iii)의 합이 직접적으로 문장 (i)과 관련되어 있다.